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일 시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담 당 자	김혜진 팀장(☎02-398-7729)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02-398-7740)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 양육비는 적게 쓰지만 육아서비스는 더 부족하게 느껴

육아정책연구소 2026년 「이슈페이퍼」 02호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발간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 결과,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69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78만5천원)보다 8만6천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보육비 지출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이용 여건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 반면 육아서비스에 대한 체감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는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문화 및 놀이시설, 보건·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육아지원 관련 지역공동체까지 대부분의 육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의 부족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책임자인 최효미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결과가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 여건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돌봄, 문화 등 육아서비스의 이용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권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동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문화·육아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영유

아 가구가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 지원을 병행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슈페이퍼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이슈페이퍼 1부. 끝.

붙임: 2026년 이슈페이퍼 02호 파일 1부.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출판홍보팀 김혜진 팀장(☎ 02-398-77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